

서울 거리를 걷는 사람들, 그안에 가득 찬 에너지

“아무 거리에서나 잠시 멈춰 지나가는 군중을 바라 보라. 이 걸어가는 인물들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에 휩싸여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옷차림을 연출하면서도 낯선 이들과 뒤섞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작위적인 춤을 창조해낸다.”

영국 출신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줄리안 오피(56)가 역동적인 서울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다. 오는 3월 23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그의 국내 두 번째 개인전은 서울의 보행자들을 다룬 새로운 회화 연작을 비롯해 벽면과 바닥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작품, 대형 조각 등 다양한 신작을 선보인다. 한국 사진가의 도움을 받아 4~5개월간 작업했다는 이들 연작에는 패셔너블한 소품과 핸드백들로 강조된 서울 거리의 바쁜 행인들의 모습이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현됐다.



줄리안 오피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
(3월 23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